성문 해탈 구경경지 아님을 깨닫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⑧ 희유한 법을 들은 감동

그때 혜명수보리와 마하가전연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일찍이 없던 법과, 세존께서 사리불에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정성스런 자세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면서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보고 여쭈었다.

"저희가 비록 승가의 윗자리에 있으나 모두 노쇠하여 더는 감당할 힘이 없다고 여겨,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지 않았나이다. 세존께서 예전에 한동안 설법을 하실 적에 그때 저희들이 그 자리 있었으면서도 몸이 지쳐 오직 공(空)과 무상(無常), 무작(無作)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보살이 법의 신통 속에 노닐며 불국토를 정화하며 중생 성취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 얻도록 해주셨다고 여겼으며, 또 이제 저희들이 이미 많이 늙은 탓에,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아뉴다라삼먁삼보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나이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 주시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 경탄하니 이제야 문득 이렇게 희유한 법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이다. 크고 좋은 이익 얻은 것을 깊이 기뻐하나니, 무량한 보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게 되었나이다."

이 대목은 수보리를 위시한 네 제자가 법화 법문을 듣고 감격해하는 장면이다. 승가의 대표 격으로 상석(上席)에 앉는 자신들이 〈법화경〉을 듣기 전에 대승으로 발심, 전환을 하지 못하여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서술하고 있다. 공(空)과 무상(無常), 무작(無作)은 소승법에 설해져 있는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은 무아(無我)의 이치를 나타내는 말로 대승의 공관(空觀)과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무상(無常)은 고(苦)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되는 말로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말로 연결된다. 무작(無作)은 어떤 작용이 없다는 뜻으로 고(苦)를 성립시키기는 하지만 고를 만드는 작용이 본래는 없다는 뜻이다.

소승경전으로 알려진 〈아함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공(空)이다. 불교의 핵심 교리가 사성제(四聖諦)이다. 이 사성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이를 성문(聲聞)이라 한다. 혜원(慧遠)이 쓴 〈대승의장(大乘義章)〉에는 성문의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부처님의 음성에 의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둘째, 부처님 음성에 의한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만 깨달은 사람. 셋째, 불도를 설한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들을 수 있도록 교화하는 사람이다. 하여 앞의 둘을 소승성문이고 셋째는 보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보살은 대승에 속하므로 성문을 대 · 소승으로 구분하여 말한 것이다. 원래 성문은 석가모니 재세 시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하나로 쓰였다. 아라한(阿羅漢)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다. 물론 부처님 자신도 아라한이라 말한 적이 있다. 5비구를 제도하여 아라한이 되게 한 후 '이제 이 세상에 6아라한이 있게 됐다' 고 한 말이 경전에 나온다. 그리하여 아라한을 공양을 받은 자격이 있다는 뜻에서 응공(應供)이라 번역, 여래십호의 명호에 들어 있다. 〈잡아함경〉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에 하신 말씀이 나온다. "나는 생이 이미 다하였고, 청정한 행도 실현하였으며, 할 일도 이미 다 마쳤으니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하였다. 이는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 말한 것이다. 번뇌를 모두 끊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라한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이 아라한의 경지가 불법을 완전히 성취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아라한이 완전한 경지라면 수기를 줄 필요도 없지 않은가. 4대 제자가 성문의 해탈이 불법의 구경 경지가 아님을 법화법문을 듣고 비로소 깨닫고, 무량한 보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게 되었다고 감탄하면서 보리심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는 '비유품' 의 한 대목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육체 행위 아닌 정서적 행위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⑧ 불사음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세 번째인 불사음계(不邪婬戒)는 그릇된 음행의 절제와 관련이 있다. 출가자는 원칙적으로 사원에서 독신의 삶을 살도록 요구되지만, 재가자에게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재가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계는 비도덕적인 성행위와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결혼한 성인에게는 배우자 간의 성생활만 허용되며, 혼외의 성생활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결혼하지 않은 성인일지라도 불법적인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인 충동이 주기적인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적인 욕망은 지속적이다.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집착은 결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지 또는 욕망이거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지 또는 욕망이다. 이런 의지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악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적 발전으로 성적인 욕망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발전으로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

어떤 이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욕적 삶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욕락(五欲樂), 즉 다섯 가지 욕망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섯 가지 감각[五感]과 관계하는 다섯 가지 대상[五境] 즉, 시각적 대상, 청각적 대상, 후각적 대상, 미각적 대상, 촉각적 대상에 대한 탐닉을 금지한다. 특히 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부정한 성관계는 촉각적 대상에 대한 탐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사음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한 탐닉을 직 · 간접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당연히 음란물을 보거나 듣거나 유포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한 탐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는 것, 즉 '적은 바람과 만족함' 이다. 많은 이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이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는 불만족한 느낌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탐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스승이 제자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등이다. 이런 불만족한 상황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만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만족함은 '최고의 부유함'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사음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릇된 음행을 절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릇된 음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만족은 성적인 욕망에 대한 절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간의 성행위를 감각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감을 위한 정서적 행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만족감을 드러내거나,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대화하거나, 늘 서로를 배려하는 것 등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⑧ 고대인도의 문자

부처님 당시 문자 없었을까?

고대인도 문화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천 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문자(文字)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원전 2천 년경 인더스 문명기에 사용되었던 인더스 문자가 아직 해독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렸고, 다시 그 이후 인도에 문자가 등장한 때를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비문의 문자가 나타난 때로 본다면, 고대인도인들은 최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싯다르타가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싯다르타는 정말 무문자(無文字)의 사회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른다.

인도 고전 속에는 고대 인도인들이 문자를 사용했을 법한 약간의 단서가 보이기는 한다. 아마도 싯다르타의 시대와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기원전 4세기 중반 빠니니(Pāṇini)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는 구전으로 전승된 자신의 문법서에 '리삐(lipi)'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글자' 또는 '문자' 를 뜻할 수도 있다. 또한 '그란타(grantha)' 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는 '책' 을 가리키는 말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따라서 싯다르타 당시에 문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이유는 이런 희미한 단서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리삐나 그란타라는 단어가 실제로 당시에 글자와 책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사한 시기에 또 다른 증인으로 그리스인이 있었는데, 그는 기원전 4세기경(B.C 325년경)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인도 북서부 지역에 들어왔던 장군 네아르코스(Nearchos)였다. 그의 기록은 후대의 역사가 스트라본(Strabon)에 인용되는데 네아르코스에 따르면, "인도사람들은 천조각에 글자를 썼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그리스인 증인도 있다. 네아르코스보다 20여 년 뒤늦게 인도 땅에 등장한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다. 그가 인도에 살면서 남긴 인도 역사서 〈인디카(Indica)〉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인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인도사람들은 '기록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남긴 단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아르코스는 주로 인더스 강 하류의 인도지역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메가스테네스는 갠지스강 유역의 인도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차이는 당시 인도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꾸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북서부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아람어가 통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람어와 아람(Aramaic) 문자는 인도북서부 지역까지 퍼졌던 국제공용어(lingua franca)로서 탁실라 등지에서 아람어 비문을 보게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네아르코스가 "인도사람들이 천조각에 글자를 썼다"고 한 것은 인도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 아람 문자를 사용하는 누군가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갠지스 강이나 야무나 강을 따라 마우리야 왕조의 본거지 파탈리뿌뜨라를 방문했던 메가스테네스의 기록은 인도 본토의 내부 상황에 더 충실했을 수 있다. 즉, 이방인의 유입이 빈번했던 인도북서부와 달리 싯다르타가 활약하던 인도 동북부 지역은 문자 활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살았던 싯다르타는 과연 문자 없는 사회 속에 살았던 것일까. 현재로서는 추측과 상상만 가능할 것이다. 비록 그 당시에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어도,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비문에 나타난 브라흐미(Brāhmī) 문자는 그 형태가 이미 꽤나 발전한 상태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싯다르타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쇼카 비문에 나타난 브라흐미 문자의 초기 형태를 사용했거나, 아마도 브라흐미 문자가 파생되어 나온 어떤 근원 문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 학자들은 브라흐미가 아람 문자에서 파생했을 것이라는 데 거의 동의한다. 지중해 연안의 셈족 언어를 표현하던 아람 문자가 충분한 변형의 과정을 거쳐 인도 동북부까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마도 싯다르타는 그 문자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